

소설로 다시 만나는 일타 스님 일대기

인연, 2

정찬주 지음 | 작가정신 펴냄 | 1만 2800원



이 책은 우리 시대의 한 스승으로 살다 간 일타 큰스님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14세 출가 때부터 71세에 입적하는 순간까지 순수한 구도자로서의 삶을 추구해온 일타 스님을 불자들은 '자비의 화신'으로 기억한다. 스님은 자비를 강조하는 불교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오토이 사셨다. 하지만 이 책은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 보이는 저 높은 위치에 선 위인으로서의 일타 스님을 다루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와 닮았을 한 인간으로서의 일타 스님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타 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마음에 걸림이 없는 자비를 실천하기까지 수많은 번뇌 망상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론 다른 길을 모색 한다. 쉽게 유혹에 빠지고 망상에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타 스님의 처

열한 정진은 보다 현실적이며, 이러한 노력이 자기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구원까지 염원한 것이기에 더욱 감동적이다.

소설은 화자 고명인이 등장하는 부분과 일타 스님이 주인공으로 직접 등장하는 병렬 구조로 이뤄져 있다. 소설 속의 고명인은 우리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다. 고명인은 어머니를 여의고 상실감에 젖어 있는 인물이다. 그는 어머니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일타 스님의 법문을 들었던 해인사를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자기도 모르게 스님이 수행했던 행적을 좇기 시작한다. 이 과정 속에서 고명인은 상실감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미 입적한 일타 스님과 생사의 경계를 넘어 맺은 인연이 고명인에게 삶의 전환점이 되어준다. 이와는 별도로 일타 스님이 깨달음을 얻는 구도의 길을 걷는 모습을 찬찬히 보여준다. 고명인과 일타 스님은 각자 자신의 마음을 구하는 길을 걸어가다가 종국에는 한곳에서 합치된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명인이 깨달음을 얻은 일타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자신만의 화두를 드는 장면은 일타 스님이 직접 고명인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만나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새로운 만남이 온다는 말이 있다. 오 늘이 어제의 전혀 다른 새로운 날임을 감

안한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인연을 새롭게 맺고, 또 그 인연을 끊는 셈이다. 그래서 고승들은 오고 감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움에 오직 현재만을 직시하는 삶을 살아간다. 고명인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매 순간순간 새롭게 맺어지는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고 그 인과의 고리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어느새 절감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과의 고리를 끝없는 윤회를 통해 설명한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인 전생애가 있고, 현재의 내가 속

인간적인 스님 모습 조명
치열한 정진 감동적으로 기술
화자와 주인공 등장 병렬 구조
단단한 짜임새 구성력 돋보여

한 금생이 있으며 죽은 후에 다시 살게 될 내생이 있다. 이 삼생의 순환 속에서 수많은 인연의 고리를 맺고 풀아가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보는 우리의 삶이다. 소설 속에서도 이러한 순환의 고리는 그대로 작동된다. 일타 스님이 상좌 해관 스님에게 내생에는 해관 스님의 상좌가 되겠다고 말하는 장면이나 해국 스님이 일타 스님의 은사였던 대강백 고경 스님의 후신인 것처럼 암시되는 장면에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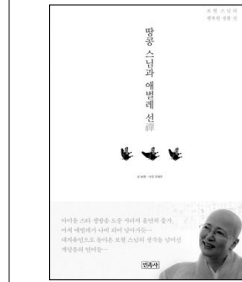
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인연은 인과의 고리처럼 얽혀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로 단단하고 짜임새 있는 서사를 지니고 있다.

모든 종교는 각 개인의 '마음'을 구하고 평안을 얻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다. 고명인 역시 소설의 결말에 이르러 일타 스님의 법문이 녹음된 테이프를 듣고 즉심시불, 즉 내 마음이 부처가 아니고 무엇인가란 화두를 들고 자신의 마음을 구하게 된다. 고명인이 들었던 일타 스님의 법문은 곧 일타 스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육성에 다름 아니다. 자기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부처의 마음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구원의 여지가 있다는 일말의 희망이자 큰 기대가 아닐 수 없다. 무엇이 부처인지, 내 마음속에 과연 부처가 있는지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마다 다 제각각일 것이다. 소설은 결코 작가가 작성한 '해답'을 직접적으로 건네지 않는다. 다만 화두를 던질 뿐이다. 그만큼 이 책을 읽고 난 뒤의 느낌과 해석의 폭은 넓어지기 마련이다.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일은 어쩌면 한가한 사치에 속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한 계기 자체가 없었던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이 소설은 우리가 있고 있었던 중요한 문제, 즉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습관적 에너지가 人生 끌고가 ... 마음공부 매일 반복 필요”

망공 스님과 애벌레 선(禪)
글 보현 · 사진 강영주 | 민족사 펴냄 | 1만 3800원



지난 1999년 자전소설 <타래>를 통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보현 스님(부처님 마을 선원장)의 신간 <망공 스님과 애벌레 선(禪)>이 출간됐다.

<타래>서 파노라마와 같은 인생 역정을 풀어냈다면, 이번 책에서는 깨달음의 향기 가득한 수행 이야기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생활 선을 통해 마치 '애벌레가 나비 되어 날아가듯이' 세간에서 짙어지고 있던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 이야기가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저자는 이 책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정도로 세상이 습관하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 삭박하는 날, 정말 환희심에 차서 날아갈 것처럼 흥분했습니다. 좀이라도 명실당실 추고 싶었습니다. (...) 신기한 것은 나를 출가로 이끈 망공 스님을 더 이상 꿈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목적지에 데려다주고 떠나는 배처럼 망공 스님은 그날 이후로 생생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망공 스님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내 공부거리가 되었습니다.”라고 출가 당시를 회고한다.

스님은 이 책에서 처음으로 출가 인연 이야기를 밝혔다. ‘어릴 적부터 꿈속에서 보았던 망공 스님이 인도로 출가했다’는 몽중가피로 이루어진 스님의 출가 인연 이야기가 매우 독특하다. 그렇잖아도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봐 그동안 망공 스님에 대해 함구하고 있었는데, 깊은 내면의 세계를 보았기에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다는 스님의 말씀에서 당당한 수행자의 면모가 느껴진다.

스님은 인기 절정시였던 탑스타 시절, 자살 충동을 느꼈을 정도로 괴로웠다. 하지만 출가 후 수행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었고, “수행을 통해 당신도 나처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참 나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정답을 빼면 비로소 참된 내 모습이 보입니다. (...) 잘못 된 정답, 자기가 옳다고 집착할 때 옳다고 여기는 것만큼 정답이라고 확신하는 그 높이고 낮이만큼 괴로움도 커지고 ‘참 나’와는 팔만 사천리나 멀어집니다.”라고 그간의 사유를 털어 놓는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을 살펴보면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정답이라는 생각 때문임을 스님은 이 책에서 확실하게 일깨워 주었다. 선 수행을 통해 참 나를 보면 자기가 정답이라고 우기던 집착에서 벗어나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조언한다. “기습속에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리 집중하려고 애써도 그 번뇌 망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수행하기 힘듭니다.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부처님으로, 선지식으로 섬길 때 번뇌 망상도, 그로 인한 고통도 사라집니다.”라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수를 부처님으로 선지식으로 섬길 때 번뇌 망상과 고통에서 사라진다는 스님의 말씀은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준다. 스님의 수행력으로 빛은 한 말씀 한 말씀이기에 안심입명을 넘어 근원적인 깨달음으로 이끌어 준다.

저자는 마음공부의 중요성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운동선수나 시합 긴장중후군, 텔러트는 연기 긴장중후군, 기수는 공연 긴장중후군 등등. 긴장중후군은 다 불안함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관찰하고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러한 긴장중후군에게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잘 관찰하고 본질을 찾는 공부

이제 수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활선은 활력 에너지 일으켜

를 해 나가면 보너스를 받았다 그마음 느낌으로 세상살이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자 스님은 스트레스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이제 수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역설한다. 또한 바쁜 현대인들의 일의 스타일에 맞는 생활 선이 필요할 시대라고 강조하면서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거울을 보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사무실의 의자에 앉아서도 잠시 잠깐 짬을 내서 할 수 있는 7분 수행, 생활선으로 환골탈태의 삶을 열어가 수 있음을 확인한다.

저자는 “습관적인 에너지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 마음공부도 습관화해야 한다. 당신 안의 에너지를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활 선”이라고 강조한다.

스님은 리더십 선, 비즈니스 선, 성공 선, 체중계 선, 면접을 앞둔 이들을 위한 자제 선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안에 본래 간직한 무한한 에너지를 끌어내어 쓰는 다양한 방법을 자세하게 일깨워준다.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힘을 증폭시키는 비결이 몸에 배는 듯하다. 대 공경에 너기를 담고 있는 스님의 생활 선 이야기가 마음 치유에서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열어주는 자기 개발서로도 손색이 없다.

이 책은 다섯 개의 장과 부록으로 나누어 편집되어 있으며, 각 장의 문을 열 때면 공수래 공수거의 인생을 담고 있는 무성화, 수미산, 일일연주, 아와, 나그네 등 스님이 작사한 찬불가요도 만날 수 있다.

불교와 심리치료의 공통점은?... 고통치유

자비의 심리학

론 레드너 지음 | 박형선 외 5명 공역 | 1만 7천원



불교와 심리치료의 공통점은 모두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불교와 심리치료를 실제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늘어난다. 그 중 불교 명상이 심리치료의 중요한 방법으로 크게 주목 받고 있다. 즉 고통을 치유하고 의식 발달을 도모하는 동서양 두 개의 상이한 길이 비로소 한 길로 만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상심리학자 론 레드너가 불교와 심리치료의 이해를 돕는 책인 <자비의 심리학>을 펴내 눈길을 끈다. 저자는 불교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자비

를 정신분석과 대상관계 심리학의 언어로 풀어냈다. 또한 부정적 감정 혹은 대인 관계에 대한 문제로 고통 받는 다양한 사례를 수록해 자비가 갖는 심리치료적 효과를 설명한다.

자비심은 우주 안의 모든 존재가 연결됐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감정이다. 이러한 지혜가 결여된 행복 추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많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성취하는 데 실패한 이유는 자신을 다른 존재와 분리된 견고하고 영구적인 실체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비심 개발을 위해서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가 쓰고 있는 거짓된 가면을 벗어 버리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저자는 이러한 거짓된 가면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는 끈질긴 자기애적 이미지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자기애적 이미지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소유하려 한다는 것이다. 오로지 즐기기만을 취하고 불쾌한 것들은 부인하게

나 없애려 한다. 이러한 자기애적 소망이 성공하면 즐거워하고 실패하면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갖는다. 자기애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갈망과 원망, 쾌락과 불만족을 오가는 윤회의 뒷에 빠지게 된다.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은 자기애적 소망이 결국 괴로움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모든

불교 자비, 심리학 언어로 풀어내
거짓된 가면 자기에 집착서 발생

존재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자신을 헌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다.

이 책은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종사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부정적 감정과 관계에서의 갈등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일반인에게도 매우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살아 있는 사람 애도하기, 사랑 넘치는 의사소통, 투사를 이해하기, 논쟁에서 즐겁게 지기와 같은 호기심을 자아내는 주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서 흔히 경험하는 골칫거리들에 대해 자비심을 증진 시킴으로써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생생한 예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다.

책은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 '자비로운 시각'에서는 자비가 심리 건강과 행복에 중요한 이유와 자비의 개발에 있어 장애가 되는 것을 소개하고, 2부 '자비수행'에서는 자비를 키우는 방법을 담았다.

상도선원장 마산 스님은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의 특징은 자비라는 주제를 통해서 서양 심리학과 소통하고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감의 문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비에 대한 깊은 고찰과 적극적인 실천 운동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에 지침이 될만하다'고 평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전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조건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전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화제의 신간 명당발복의 이천년 신비를 과학이 밝혀냈다

명당발복의 신비

★ 대통령과 재벌을 원한다면 대명당인 **천조명당 天造明堂**을 구求하라!

★ 가문의 영광과 부귀영화를 바란다면 **지조명당 地造明堂**을 구求하라!

★ 소문난 맛집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면 **인조명당 人造明堂**을 구求하라!

● 풍수지리(風水地理) 이천년 역사상 최초로 명당(明堂)의 땅 속 형상(形象)이 과학기술(科學技術)에 의해 밝혀짐에 따라 명당의 실제(實體)와 명당의 크고 작음(명당자리의 大小)을 판단(判斷)할 수 있는 방법(方法)을 처음으로 이 책을 통해서 만천하(滿天下)에 공개한다.

● 명당이 명당을 불러들이는 신비한 현상(現象) 즉, 음택명당(陰宅明堂)이 양택명당(陽宅明堂)을 불러들여 명당발복(明堂發福)의 시너지 효과(效果)를 만들어 내는 명당발복의 신비(神祕)한 비밀이 드디어 이 책을 통해서 적나라(赤裸裸)하게 벗겨지게 되었다.

■ 동선호 지음 / 신국판 / 516쪽 / 정가 25,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여기서 이르기까지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롭게 하늘의 기미를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감응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영정본 / 817쪽 / 정가 50,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범수

나의 이력서로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사주를 보는 안목이 한순간 확립될 것이다.

수십년 공부하여 포(포)하고 싶었던 고민이 한순간 해결된다.

명리학의 핵심은 용신이며 화신과 기신의 작용이다.

용신이란 부,귀,빈,천과 운세를 보는 열쇠사 된다.

가장쉬운 용신을 모르고 사주의 병과 약을 모르고 있다.

자평명리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준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영정본 / 66쪽 / 정가 7,000원